2020-09



경제 브리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 2020. 9. 9

- 2020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5%로 하향조정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대책 강화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하향 조정한데 주로 기인
- 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9.4일)에서 경제전문가*들은 2020년 한국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3%)와 IMF 전망치(-2.1%) 사이에 위치 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에 수요·공급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출이 과거 위기에 비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측
 -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GDP 성장률(growth rate)이 2~3% 내외로 높아질 수 있으나, 내년 GDP 규모(level)가 코로나19 이전의 추세 성장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금번 글로벌(한국 포함) 경기침체가 외생적 충격(코로나19)에 의해 발생 하였기 때문에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9.4일 4명의 경제전문가[김준일(IMF), 김현욱(KDI정책대학원), 신관호(고려대), 이찬우(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전망, 금융상황, 금융기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경제브리프』에는 경제전망에 대한전문가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고 전체 토의 내용은 『우리리서치PLUS』 9월호에 게재할 예정

작성자: 허문종 연구위원(02-2173-0568), 이다은 연구원(02-2173-0578) 책임자: 권영선 실장(02-2173-0569)

목 차

I. 202	20년	국내 경제 전망	1
II. 국	내외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점검	5
[붙 ^ç	임 1]	국가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사망자 수 추이 ······	8
[붙여	임 2]	생산활동 설비투자 동향	2
[붙역	임 3]	대외거래 동향 1	4
[붙역	임 4]	소비·고용·물가 동향 1	6
[붙역	임 5]	건설·부동산시장 동향 1	8

I. 2020년 국내 경제 전망

1. 경제 성장률

■ 2020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5%로 하향조정

-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3분기 GDP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전기비 2.5% → 1.0%)으로 예측
 - 7월 소매판매가 정책효과(긴급재난지원금, 개별소비세) 축소와 장마¹⁾로 급감 (전월대비 -6.0%)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로 8~9월에도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8.16일~) 서울·경기 2단계 시행 → (8.23일~) 전국단위 2단계 시행 → (8.30~) 수도권 2.5단계 시행(9.6일 종료 예정이던 2.5단계 조치를 1주 연기)
 - *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24~30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 액이 전년동기대비 25%(서울은 3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4분기 GDP 성장률도 기존 1.9%(전기비)에서 1.3%로 하향조정
 - 당초 예상보다 설비투자가 IT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수출은 회복 강도가 미약할 전망
 - * 글로벌 경제와 수출 전망에 관하여 '경제전문가 온라인 좌담회(9.4일) 토의 내용'(p2)과 'II.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점검'(p5~7) 참고

2020년 한국 분기별 GDP성장률 전망

2020년 지출항목별 성장률 수정 전망



^{1) 2020.7}월 강수일/강수량(서울 기준, 일/mm): 2018년 10/186 → 19년 19/194 → 20년 22/270, 올해 7월 평균기온 (22.7도)이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6월 기온(22.8도)을 하회하며 계절가전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1

〈BOX: 경제전문가 온라인 좌담회(9.4일) 토의 내용 요약²⁾〉

-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2020년 한국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 (-1.3%)와 IMF 전망치(-2.1%)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민간소비 회복세 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
 - IT분야의 설비투자는 견조할 것으로 보이나, 여타 부문은 경기 불확실 성과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에 기인하여 미진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에 수요·공급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출이 과거 위기에 비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측
 - * 1997년 외환위기는 신흥국에서 촉발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는 선진국에서 유발되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환율 조정(원화의 대폭 절하가 수출 회복에 기여) 과 상대적으로 견실한 대외수요(선진국이 어려우면 신흥국 수요가 보충하고, 신흥국이 어려우면 선진국 수요가 보전)에 힘입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었음. 하지만 올해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었기 때문에 환율 조정이나 상대적 대외수요를 통한 수출의 급격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전문가들은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GDP 성장률(growth rate)이 2~3% 내외로 높아질 수 있으나, 내년 GDP 규모(level)가 코로나19 이 전의 추세 성장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금번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기업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 속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 전문가들은 금번 글로벌(한국 포함) 경기침체가 외생적 충격(코로나19)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개발·활용된다면 V자 형태의 경기 반등이 가능하겠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

²⁾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9.4일 4명의 경제전문가[김준일(IMF), 김현욱(KDI정책대학원), 신관호(고려대), 이찬우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전망, 금융상황, 금융기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경제브리프』에는 경제전망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고 전체 토의 내용은 『우리리서치PLUS』 9월호에 게재할 예정

- 연간 GDP 기준으로 보면 정부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분이 수출·민간소비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
 - ① [민간소비] 정부의 고용·소득 지원대책으로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해외여행의 물리적인 제약 등이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상반기 2.5%(전기비, 평균) → 하반기 1.6%, 연간 -3.2%)
 - ② [정부소비] 대규모 추경 편성과 적극적 재정집행에 힘입어 민간수요 부진을 상당폭 보완할 것으로 예상(상반기 1.2% → 하반기 2.6%, 연간 7.4%)
 - 2020년 추경* 규모(1~3차 총 59조원, GDP대비 3.1%)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8.4조원, 2.4%)을 상회하여 정부소비 증가율도 2009년 수준 (6.7%)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 * 9.6일 당정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7.5조원 내외)을 편성키로 결정
 - ③ **[설비투자]** 주요국의 경제재개에 따른 글로벌 교역 회복과 제조업 가동률 반 등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하반기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상반기 -0.1% → 하반기 0.8%, 연간 3.9%)
 - * 특수산업용기계 투자(전년동월비): 5월 31.3% → 6월 37.0% → 7월 55.9%
 - ④ [건설투자] 주거용 민간투자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상업용 임대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과 공공부문 토목건설 증가로 하반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상반기 -0.5% → 하반기 -0.1%, 연간 1.1%)
 - ⑤ [수출(재화·서비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각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방역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반등할 전망(상반기 -8.7% → 하반기 5.7%, 연간 -6.6%)

2. 소비자물가

- 2020년 CPI 상승률은 0.5%로 2019년(0.4%)에 이어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 기상악화로 농축수산물가격이 상승하겠으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측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등록금 면제·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이 저물가 요인 으로 작용

3. 고용

- 2020년 고용시장은 취업자가 전년대비 9.4만명 줄어 2019년(30.1만명 증가) 보다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대 책 강화로 서비스업 일자리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
 -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5월 -32.7 → 6월 -27.9→ 7월 -23.7

4. 경상·재정수지

- 2020년 경상수지 흑자는 562억달러(GDP 대비 3.6%)로 2019년(600억달러, 3.6%)보다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 경상수지 악화요인(수출 급감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이 개선요인(여행 수지 적자폭 축소)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상
 - * 1~7월 경상수지 흑자는 266억달러로 전년동기비 8.9% 감소
 - * 1~6월 입·출국자 증감(전년대비, 만명): 외국인 입국 -638, 내국인 출국 -1,127
-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76.4조원(GDP 대비 4.1%) 적자로 2019년(12조원 적자, 0.6%)보다 적자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5. 부동산시장

- 2020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5.72%로 전년(0.24%) 대비 높아질 전망
 - 올해 1~8월중 전국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85% 상승
 -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 2020.1~7월 누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76.2만건)은 전년동기대비 99.8% 증가(5년 평균 대비 40.0% 높은 수준)
 - 9~12월중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실시로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률도 1.80%로 둔화될 전망
 - *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단기 투자자에 대해 양도세를 상향 조정하여 투기수요를 억제
 - *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산·강남 등에 총 13.2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

국내 주요 거시지표 전망

하ㅁ	EF01		연간		2020 분기							
항목	단위	2019	2020F	2021F	1/4	2/4	3/4F	4/4F				
GDP(실질)	전기대비, %	2.0	-1.5	3.0	-1.3	-3.2	1.0	1.3				
	전년동기대비, %				1.4	-2.7	-2.2	-2.1				
민간소비	전기대비, %	1.7	-3.2	3.1	-6.5	1.5	2.2	1.0				
	전년동기대비, %				-4.8	-4.0	-2.3	-1.9				
정부소비	전기대비, %	6.6	7.4	5.6	1.4	1.1	4.1	1.0				
	전년동기대비, %				6.8	6.1	8.9	7.8				
설비투자	전기대비, %	-7.5	3.9	4.0	0.2	-0.5	0.7	0.9				
	전년동기대비, %				7.3	4.1	3.3	1.4				
건설투자	전기대비, %	-2.5	1.1	1.5	0.5	-1.5	-2.7	2.5				
	전년동기대비, %				4.2	-0.1	3.1	-1.7				
수출(재화, 서비스)	전기대비, %	1.7	-6.6	2.6	-1.4	-16.1	7.0	4.3				
	전년동기대비, %				5.6	-13.0	-10.8	-7.2				
수입(재화, 서비스)	전기대비, %	-0.6	-5.8	0.3	-3.6	-6.7	0.4	4.1				
	전년동기대비, %				0.9	-8.5	-9.5	-5.8				
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 %	-10.4	-8.9	4.4	-1.8	-20.3	-7.9	-5.2				
수입(통관)	전년동기대비, %	-6.0	-9.4	5.6	-1.8	-16.1	-12.3	-7.2				
재정수지 ¹⁾	조원	-12.0	-76.4	-42.0	-	-	-	-				
	GDP대비, %	-0.6	-4.1	-2.2	-	-	-	-				
경상수지	억달러	600	562	574	133	58	201	170				
	GDP대비, %	3.6	3.6	3.4	-	-	-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0.4	0.5	1.2	1.2	-0.1	0.5	0.6				
실업률(SA)	%	3.8	4.0	3.8	3.7	4.2	4.0	4.0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만명	30.1	-9.4	10.1	28.8	-40.7	-21.4	-4.2				
전국 주택매매가격	전기말대비, %	0.24	5.72	0.70	1.29	0.85	2.35	1.12				
기준금리	기말, %	1.25	0.50	0.75	0.75	0.50	0.50	0.50				

주: 1) 통합재정수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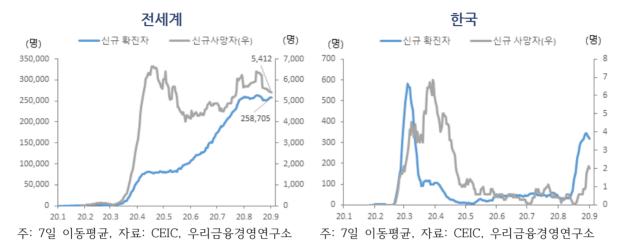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점검

- 전세계 신규 확진자수는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검진자수 증가의 영향으로 5월 중순 이후 급증하다 8월 들어 정체되는 모습
 - 지역별로는 미국·중남미·러시아·일본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도·유럽은 증가
 - 한국은 8.15일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50명 내외에서 200~40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여타국(중국 제외)에 비하여 인구수 대비 확진자수는 미미

* 인구 1만명 당 확진자수(8월): 브라질 61.3, 미국 46.0, 스페인 32.1, 프랑스 10.5, 영국 4.8, 독일 4.1, 호주 3.7, 일본 2.7, 인도 2.6, 한국 1.1, 중국 0.0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사망자 수]



국가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증가세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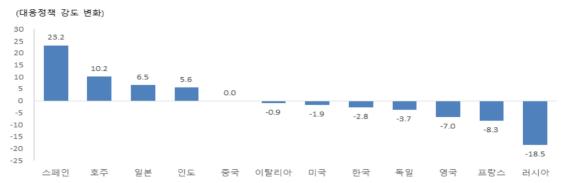
	7.11일		9.1일	
	국가	확진자 규모	국가	확진자 규모
전세계 신규 확진자 규모	-	200,247명	-	258,705명
1. 확진자 규모가 크고 증가	미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멕시코, 필리핀	1,700~54,000명	인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200~75,000명
2.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감소	러시아, 방글라데시,파키스탄	3,000~6,600명	미국,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방글라데시, 남아공, 일본	1,000~41,000명
3. 확진자 규모가 작지만 증가	일본, 호주	150~300명	한국	320명
4. 확진자 규모가 작고 감소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중국	20~610명	파키스탄, 호주, 중국	25~340명

주: 1)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CEI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하는 모습

- Oxford 대학교가 평가한 각국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엄격성 지수(Oxford Covid Stringency Index)에 따르면 인도·스페인·호주·일본 등은 7~8월 중확진자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지수(9.2일 기준)에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8.30~9.13일)가 아 직 반영되지 않아, 추후 지수가 상승(방역강화)할 것으로 예상

7.1~9.2일 중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엄격성 지수¹⁾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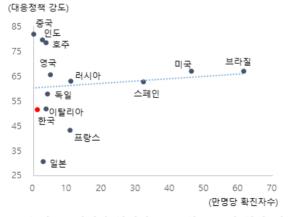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관련 8개(학교·직장 폐쇄, 공공이벤트 취소, 모임제한, 대중교통 폐쇄, 자택대기 명령, 국내외 이동제한) 정책의 엄격성을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방역대책이 강화될수록 지수가 상승

자료: Oxford COVID Stringency Index,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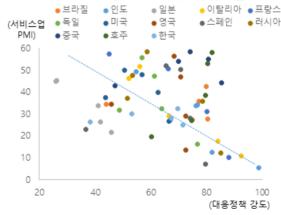
■ 방역대책을 강화한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부진

-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대책 강도와 서비스업 PMI간에 대체로 逆(-)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 한국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8.30~9.13일)가 3분기 서비스업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 재개(소비 증가) → 확진자수 증가 → 방역대책 강화 → 경제활동 위축(소비 감소) → 확진자수 감소 → 방역대책 완화 → 경제활동 재개(소비 증가)의 순환고리가 형성

주요국 코로나19 확진자수와 대응정책 강도



코로나19 대응정책 강도와 서비스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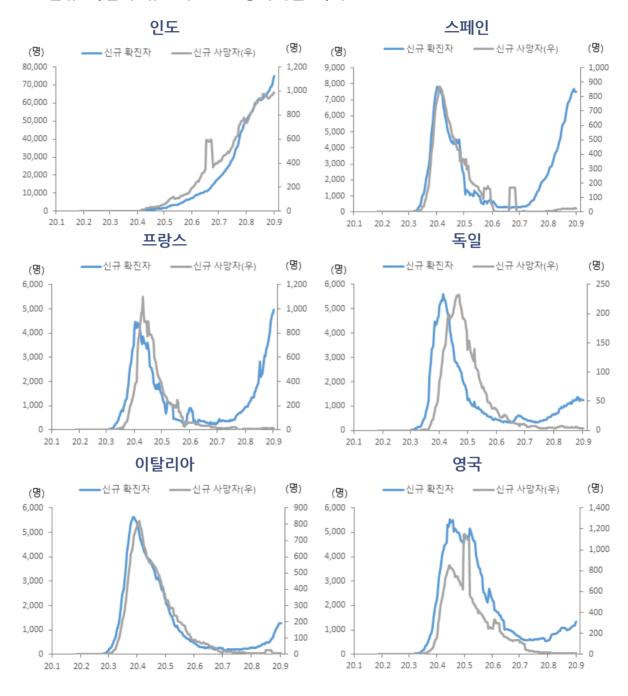


- 주: 1) 인구 1만명당 확진자수는 8월중 누적 합산 기준
 - 2) 한국의 서비스업 PMI는 한국은행의 비제조업 BSI를 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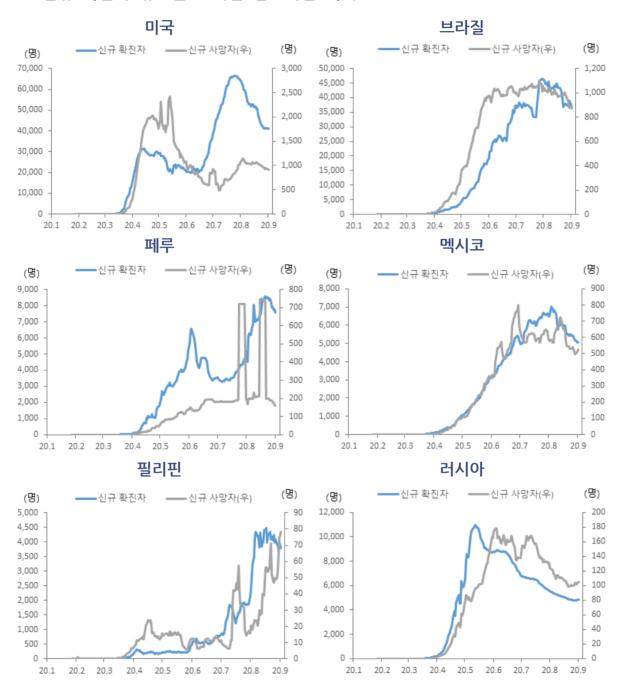
자료: CEIC, Oxford COVID Stringency Index,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가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사망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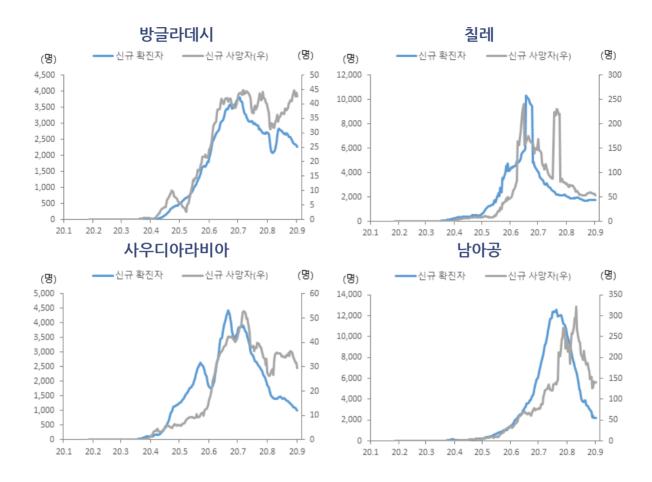
1.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고 증가하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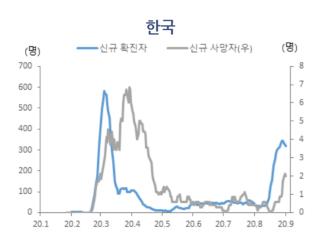
2. 신규 확진자 규모는 크지만 감소하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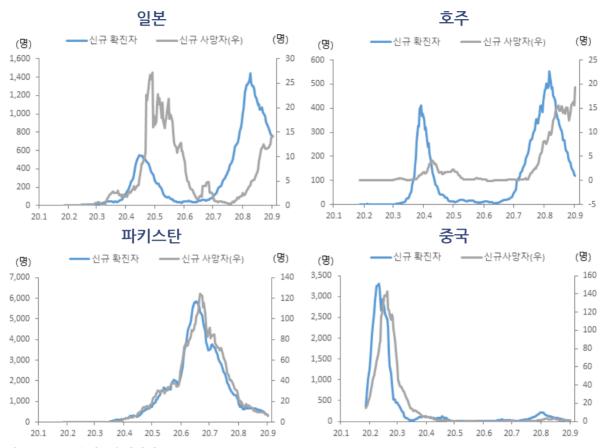




3. 신규 확진자 규모가 작지만 증가하는 국가



4. 신규 확진자 규모도 작고 감소하는 국가



생산활동·설비투자 동향

- 7월 광공업 생산은 주요국 생산 재개로 수출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월대비 1.6% 증가
 - 자동차 생산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로 대외 수요가 늘어나 14.4% 증가
 - 제조업 재고/출하비율(116.0%)은 자동차,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출하(전월대 비 +1.6%)가 늘어 1.7%p 하락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0%로 전월대비 1.8%p 상승
- 서비스업 생산은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 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전 월대비 +0.3%)
 - 금융·보험(+2.2%)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 대출과 주식거래가 확대
 - 숙박·음식점은 국내 여행 증가와 공연 재개 등으로 2.3% 증가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동반 상승
- 설비투자는 반도체, 기계장비 설비 수요 확대에도 불구, 자동차를 중심으로 운 송장비투자(-14.7%)가 줄어 감소 전환(전월대비 -2.2%)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재고/출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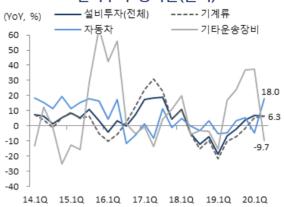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기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설비투자 증가율(분기)



14.1Q 15.1Q 16.1Q 17.1Q 18.1Q 19.1Q 20.1Q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요 생산활동·설비투자 지표

항목	단위		연간			분	기		월간					
07	CTI	2017	2018	2019	19.3/4	4/4	20.1/4	2/4	20.4윌	5윌	6월	7윌		
GDP 성장륰	전기대비, %	-	-	-	0.4	1.3	-1.3	-3.2	-	-	-	-		
ODF 665	전년동기대비, %	3.2	2.9	2.0	2.0	2.3	1.4	-2.7	-	-	-	-		
민간소비	전기대비, %	-	-	-	0.4	0.7	-6.5	1.5	-	-	-	-		
한민포미	전년동기대비, %	2.8	3.2	1.7	1.6	1.9	-4.8	-4.0	-	-	-	-		
정부소비	전기대비, %	-	-	-	1.7	1.8	1.4	1.1	-	-	-	-		
영구꼬미	전년동기대비, %	3.9	5.3	6.6	6.9	6.5	6.8	6.1	-	-	-	-		
서미트다	전기대비, %	-	-	-	1.7	2.6	0.2	-0.5	-	-	-	-		
설비투자	전년동기대비, %	16.5	-2.3	-7.5	-2.3	-2.0	7.3	4.1	-	-	-	-		
건설투자	전기대비, %	-	-	-	-6.4	8.0	0.5	-1.5	-	-	-	-		
건글구시	전년동기대비, %	7.3	-4.6	-2.5	-2.7	2.6	4.2	-0.1	-	-	-	-		
광공업 생산	전기대비, %	-	-	-	1.9	1.1	0.1	-7.1	-6.6	-7.0	7.2	1.6		
00000	전년동기대비, %	2.5	1.5	-0.1	0.3	2.2	5.1	-5.1	-5.0	-9.7	-0.5	-2.5		
서비스업 생산	전기대비, %	-	-	-	0.6	0.7	-3.0	-1.5	0.4	2.4	2.2	0.3		
시미그립 3선	전년동기대비, %	1.9	2.3	1.4	1.5	1.9	-1.1	-3.4	-6.1	-4.0	-0.1	-1.3		
제조업 가동률	기간평균, %	73.5	73.8	73.2	74.6	74.1	73.5	66.5	68.1	63.3	68.2	70.0		
재고/출하 비율	기간평균, %	99.3	106.0	109.8	109.5	109.1	114.8	122.1	119.9	128.6	117.7	116.0		
설비투자	전기대비, %	-	-	-	1.0	4.3	-3.0	5.7	5.1	-6.5	5.2	-2.2		
르비구시	전년동기대비, %	14.4	-3.6	-6.2	-1.9	3.7	7.0	6.3	1.9	3.5	13.8	6.7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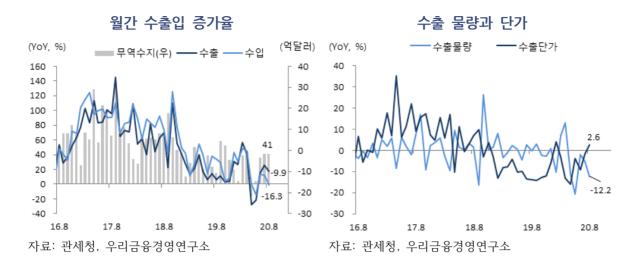
대외거래 동향

- 8월 통관수출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대외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세 지속(전년동월대비 -9.9%)
 - 일평균 수출은 3.8%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최소 감소폭을 기록
 - 품목별로 컴퓨터, 가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지속
 - 가전(14.9%)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콘텐츠 수요가 확대되면서 초대형·고화질 TV 구매가 늘어 증가폭이 확대
 - 자동차(-12.8%)는 여전히 높은 재고량과 국내 주요공장이 휴업하면서 감소폭이 확대
 - 무선통신(-31.7%)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완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줄고 아이폰 출시 일정이 연기되면서 관련 부품 수출이 급감하여 감소 전환
 - 국가별로 중국, 미국 등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부진
 - 對중국 수출(-3.0%)은 수요와 공장 가동률이 더디게 회복되고, 자동차 등의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감소 전환
 - 對미국 수출(-0.4%)은 고용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석유제품 단가 하락,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
 - 對EU 수출(-2.5%)은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가 부진 한 가운데, 자동차판매량이 줄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감소폭은 축소
- 8월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8.6%)가 증가하였으나, 저유가 장기화,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16.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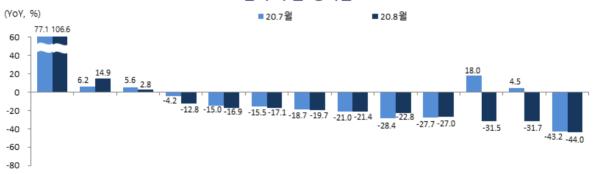
주요 대외거래 지표

항목	단위		연간			분	·기		월간				
07	CTI	2017	2018	2019	19.3/4	4/4	20.1/4	2/4	20.5윌	6월	7윌	8월	
GDP 수출	전기대비, %	-	-	-	4.5	0.6	-1.4	-16.1	-	-	-	-	
(재화·서비스)	전년동기대비, %	2.5	4.0	1.7	1.6	3.7	5.6	-13.0	-	-	-	-	
수출	전년동기대비, %	15.8	5.4	-10.4	-12.3	-11.8	-1.8	-20.3	-23.8	-10.8	-7.1	-9.9	
수입	전년동기대비, %	17.8	11.9	-6.0	-4.1	-9.7	-1.8	-16.1	-21.0	-11.2	-11.6	-16.3	
무역수지	억달러	952	697	389	98	105	86	24	4	36	41	41	
경상수지	억달러	752	775	600	192	181	133	58	23	69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품목 수출 증가율



컴퓨터 가전 반도체 자동차 섬유류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DP 차부품 선박 무선통신 석유제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역별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수출 전체	중국	ASEAN	(베트남)	(베트남 제외)	미국	EU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CIS	동구권
19-09	-11.9	-22.1	-0.6	7.2	-7.3	-2.2	10.0	-6.4	10.8	-9.3	-10.5	39.6	2.0
19-10	-15.0	-17.1	-8.8	-0.9	-15.9	-8.9	-21.5	-14.2	-13.4	8.0	-13.3	-4.9	-2.3
19-11	-14.5	-12.3	-19.5	-10.4	-28.2	-8.4	-21.9	-11.0	-15.9	1.1	-15.9	29.7	1.6
19-12	-5.3	3.3	-9.8	-5.3	-14.1	-0.3	-20.5	-5.4	-6.9	18.7	-15.1	19.8	12.9
20-01	-6.6	-11.0	9.2	1.4	16.0	-7.6	-16.3	-7.0	-30.5	-9.7	-13.9	4.9	-2.7
20-02	3.6	-7.4	5.6	10.0	1.5	9.0	-2.3	-1.3	11.1	0.1	14.3	12.1	16.8
20-03	-1.7	-6.9	-3.6	-1.6	-5.7	15.4	9.1	9.9	-26.1	7.8	-10.7	-6.0	4.7
20-04	-25.6	-18.3	-33.4	-35.3	-31.5	-14.3	-20.1	-12.8	-54.2	-20.6	-59.8	-42.2	-8.8
20-05	-23.8	-2.5	-30.0	-20.1	-39.3	-29.3	-22.6	-30.1	-53.8	-25.4	-71.9	-35.2	-30.0
20-06	-10.8	9.6	-10.8	-2.3	-19.2	-8.3	-17.0	-17.7	-49.1	-21.8	-54.1	-2.5	-25.8
20-07	-7.1	2.5	-14.6	-0.6	-29.3	7.7	-11.2	-21.6	-18.5	-24.7	-41.4	-19.9	-11.9
20-08	-9.9	-3.0	-17.8	-8.3	-28.3	-0.4	-2.5	-20.7	-30.2	-20.3	-33.0	-24.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비·고용·물가 동향

- 7월 소매판매는 개소세 인하 축소와 장마 영향으로 전월대비 6.0% 감소
 - 자동차 판매는 7월 개별소비세 혜택이 축소*되고 상반기 판매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
 - *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기존 70%에서 30%로 축소
 - 의복 판매는 긴 장마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하절기 의류 수요가 줄어 감소
 - * 1973년 이후 처음으로 7월 평균기온(22.7도)이 6월(22.8도)보다 낮은 역전현상 발생
 - 8월 소비자심리지수(88.2)는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향후 경기와 소비지 출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어 상승
- 7월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전년동월대비 -27,7만명)
 - 서비스업(-23.7만명)은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대면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숙박음식업의 감소폭이 확대
 - 제조업(-5.3만명) 은 주요국 경제 재개로 수출 부진이 완화되어 감소폭이 축소
 - 고용형태별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39.5만명)·일용(-4.4만명)직의 감소세가 이어짐
- 8월 소비자물가는 장마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 * 농축수산물 기여도: 7월 0.35%p → 8월 0.81%p
 - 농축수산물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기저효과*가 중첩되어 채소류(28.5%)가 급등하면서 10.6% 오름
 - * 2019.8월 농수산물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7.3% 하락
 - 석유류는 저유가 흐름이 지속되어 10.0% 하락

주요 소비·고용·물가 지표

항목	단위		연간			분	기		월간				
07	ETI	2017	2018	2019	19.3/4	4/4	20.1/4	2/4	20.5윌	6월	7윌	8월	
GDP 민간소비	전기대비, %	-	-	-	0.4	0.7	-6.5	1.5	-	-	-	-	
GDP 한산포미	전년동기대비, %	2.8	3.2	1.7	1.6	1.9	-4.8	-4.0	-	-	-	-	
소매판매	전기대비, %	-	-	-	0.3	1.9	-6.4	6.5	4.6	2.3	-6.0	-	
그레근데	전년동기대비, %	1.9	4.3	2.4	2.2	3.4	-2.9	1.9	1.7	6.3	0.5	-	
소비자심리지수	기간평균, 지수	105.3	103.3	98.3	95.1	100.0	93.2	76.7	77.6	81.8	84.2	88.2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만명	31.6	9.7	30.1	36.7	42.2	28.8	-40.7	-39.2	-35.3	-27.7	-	
실업률(S A)	%	3.7	3.8	3.8	3.5	3.6	3.7	4.2	4.5	4.3	4.2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1.9	1.5	0.4	0.0	0.3	1.2	-0.1	-0.3	0.0	0.3	0.7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업률과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업종별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건설·부동산시장 동향

- 7월 건설기성은 건축이 보합이나, 토목(5.0%)이 SOC 투자 확대로 크게 반등 하여 전월대비 1.5% 증가
 - 건설수주는 건축(64.2%)과 토목(149.2%)이 크게 늘어 전년동기대비 81.5% 증가
- 8월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오름세를 지속
 - 수도권(1.09%)은 서울(1.50%)이 중저가단지(예: 노원구)와 교통호재(예: 성동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
 - 5개 광역시(0.41%)는 대구(0.71%), 대전(0.52%)이 개발호재(예: 혁신도시, 복합터미널)와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감
 - 기타지방(0.37%)은 분양시장 호조와 신축 수요 증가로 충남(0.12%)과 전남 (0.24%)을 중심으로 상승
- 7월 주택매매거래는 30~40대를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큰 폭(+14.1만호)으로 증가

주요 건설·부동산시장 지표

항목	단위		연간			분	기		월간				
07	CTI	2017	2018	2019	19.3/4	4/4	20.1/4	2/4	20.5윌	6월	7윌	8월	
GDP 건설투자	전기대비, %	-	-	-	-6.4	8.0	0.5	-1.5	-	-	-	-	
GDP DETA	전년동기대비, %	7.3	-4.6	-2.5	-2.7	2.6	4.2	-0.1	-	-	-	-	
건설기성(불변)	전기대비, %	-	-	-	-3.5	1.0	4.1	-4.6	-3.7	-0.4	1.5	-	
C = 716(± C)	전년동기대비, %	11.4	-4.2	-6.9	-8.2	-2.9	0.3	-4.0	-5.3	-3.6	-0.6	-	
건설수주(경상)	전년동기대비, %	-1.7	0.2	6.2	2.6	20.9	1.7	21.6	34.0	75.7	81.5	-	
주택매매가격	전기말대비, %	1.24	3.16	0.24	0.10	0.58	1.29	0.85	0.14	0.48	0.88	0.78	
수도권	전기말대비, %	2.25	5.97	1.28	0.46	0.92	1.86	1.17	0.24	0.59	1.29	1.09	
5개 광역시	전기말대비, %	0.75	1.11	0.44	-0.03	0.69	1.07	0.72	0.09	0.42	0.43	0.41	
기타 지방	전기말대비, %	-0.76	-1.71	-2.49	-0.64	-0.36	0.08	0.18	-0.01	0.21	0.32	0.37	
주택매매거래	월평균, 만호	7.9	7.1	6.7	6.6	9.8	10.8	9.9	8.3	13.9	14.1	-	

자료: 통계청,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공종별 건설기성 증가율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자료: 국민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전월대비, %)

	전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5개 광 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지방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귀포
2019-08-15	0.05	0.19	0.38	0.06	0.06	-0.06	-0.23	0.04	-0.02	0.22	-0.18	-0.15	-0.47	-0.05	-0.15	-0.21	-0.05	-0.42	-0.01	0.02
2019-09-15	0.05	0.16	0.38	0.02	0.04	0.03	-0.12	0.05	0.00	0.53	-0.21	-0.19	-0.24	-0.10	-0.10	-0.15	0.04	-0.04	-0.37	-0.73
2019-10-15	0.09	0.19	0.37	0.07	0.09	0.12	-0.11	0.08	-0.01	0.96	-0.06	-0.17	-0.18	-0.12	-0.08	-0.12	-0.08	-0.10	-0.31	-0.46
2019-11-15	0.14	0.25	0.41	0.14	0.11	0.16	-0.01	0.22	0.01	0.60	0.14	-0.15	-0.34	-0.12	-0.05	-0.15	-0.01	-0.11	-0.14	-0.59
2019-12-15	0.35	0.48	0.70	0.39	0.11	0.41	0.38	0.28	0.05	1.19	0.23	-0.05	-0.23	-0.04	0.00	-0.12	0.03	-0.12	0.06	-0.18
2020-01-15	0.35	0.46	0.48	0.51	0.21	0.42	0.14	0.40	0.21	1.39	0.25	0.01	-0.19	-0.06	0.11	-0.02	0.06	-0.07	-0.07	-0.10
2020-02-15	0.37	0.55	0.35	0.78	0.35	0.27	0.09	0.27	0.11	0.84	0.27	0.03	-0.13	-0.03	0.17	-0.07	-0.01	-0.11	-0.01	-0.08
2020-03-15	0.56	0.84	0.47	1.12	0.97	0.38	0.08	0.22	0.33	1.31	0.44	0.04	-0.13	0.02	0.14	-0.08	-0.09	-0.05	-0.03	-0.17
2020-04-15	0.23	0.33	0.16	0.39	0.66	0.22	0.05	0.13	0.20	0.78	0.16	-0.02	-0.06	-0.03	0.01	-0.01	-0.06	-0.14	0.00	-0.07
2020-05-15	0.14	0.24	0.03	0.28	0.43	0.09	0.02	0.12	0.26	0.42	0.13	-0.01	-0.17	-0.01	0.12	0.00	-0.03	-0.12	-0.02	-0.13
2020-06-15	0.48	0.59	0.52	0.77	0.52	0.42	0.03	0.44	0.17	1.19	0.25	0.21	-0.06	1.10	0.17	-0.04	0.08	0.20	0.02	-0.45
2020-07-15	0.88	1.29	1.45	1.34	0.64	0.43	0.35	0.55	0.01	0.89	0.33	0.32	0.13	0.17	0.32	0.06	0.44	0.27	0.26	-0.28
2020-08-15	0.78	1.09	1.50	0.93	0.44	0.41	0.34	0.71	0.04	0.52	0.32	0.37	0.09	0.06	0.12	0.04	0.24	0.16	0.28	-0.05

자료: 국민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